

광주공원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 '대·자·보 광주' 스타트

공영주차장 49면 폐쇄... 시민이 걷고 싶은 차 없는 열린광장 조성 희경루·양림동·동명동 등 연계... 온실가스 감축·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가 광주공원 포장마차(포차) 거리 앞 공영주차장(49면)을 폐쇄하고, 시민이 걷고 머무르는 열린 광장으로 전면 개방했다. 광주공원 공영 주차장은 1993년 조성 이후 2009년부터 남구가 위탁 운영해 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남구 광주공원 주차장에 '청춘 빛포차 광장'을 조성하고 개방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차없는거리 주민, 상인회 대표, 대·자·보 시민실천단 등이 참석했다.

'청춘 빛포차 광장'은 자동차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 사업 중 하나다.

'청춘 빛포차 광장'은 광주공원, 희경루, 광주미디아트플랫폼 등 주변 문화자원과 함께 양림동·동명동·서남동 등 원도심과 연결해 '걷고, 모이고, 머무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시민 공간으로 조성됐다.

광주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청춘 빛포차 거리'를 시작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차 없는 문화전랑길' 운영 사업 등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대·자·보 도시 광주'를 선언하고, 교통정책 방향을 기존의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 행사에 앞서 '지역과 경제를 살리는 차 없는 거리 확산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 도심 10여곳에서 시행한 '차 없는 거리' 경제효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대·자·보 도시 전환의 환경적 효과, 차 없는 거리 확산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 도심 내 '차 없는 거리'는 ▲남동 차 없는 거리 ▲중장로4·5가 중장로개비어름비어죽제 X 청년상생마켓 ▲시청 앞 지구로 날 차 없는 거리 ▲평양동 소동테마길 ▲군부포 토요일시장 ▲백운광



22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 조성한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행사에서 강기정 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 토요일시장 ▲전남대 후문 대학로 ▲광산 세계야시장 ▲1913송정역시장 차 없는 거리 ▲상무묘역시장 등이다.

참석자들은 차 없는 거리 운영기간 동안 유동인

구가 늘고 매출이 상승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봤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동차로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대중

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복합쇼핑몰 입점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 나선다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 인근(광천권역)에 신세계백화점 확장, 전·일방 부지 더현대 광주 입점 등이 예정되면서,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천권역 재개발, 복합쇼핑몰 개점 등으로 인근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지난해 내놓은 광천권역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도) 특별 교통 대책부터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22일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선의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 최종보고

서'를 토대로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설 ▲광천권역 연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광천권역 연결 도심 급행·상생버스 운행 ▲광천권역 버스 전용 차로 운영구간·시간 확대 ▲신세계(터미널)에서 전일방 부지까지 단절 없이 10분 안에 보행으로 접근 가능한 광천 에코브릿지(랜드마크) ▲'도로 다이어트'로 보행자 중심 공간을 조성하는 광천 그린로드 ▲광천권역 도로 확장·신설 등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광천권역은 복합쇼핑몰 신설 등으로 향후 승용차 15만대 이상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녹색 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이러한 토론회에 참석한 임광균 송원대 교수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에코브릿지 조성을 환영한다"면서도 "해당 구간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미비

할 수 있다. 광천사거리 입체화로 차량 흐름 조절이 요구되며 에코브릿지 인근 최소 반경 1km 이상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석진 호남대 교수도 "광주시 계획에 공급은 있지만 수요는 부족하다"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대·자·보 중심 도시를 만든다고 했지만 '자'의 자전거 정책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자가용 운행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은 활성화된다"며 "자전거 정책이 누락됐다.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체계적인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 관광지, 구글서 전 세계 언어로 검색된다

전남도, 구글과 업무협약...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글 지도로 가볼만한 전남 관광지를 찾아 보고 맛집 등을 현지 언어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도청에서 구글(Google)과 전남관광 홍보 및 활성화, 스타트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글이 본사 차원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한 것은 전남도가 처음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이 서명한 협약서는 2년간 효력이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구글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1단계 협력사업으로, 구글 지도를 활용해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모 등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발해 추진한다.

또 온라인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글 지도에 업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필'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설명회도 연다.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연락처, 사용자 리뷰 등 구글 지도에 등록된 정보는 전 세계 구글 사용자들에게 70여 언어로 번역돼 보여지게 된다. 해외에서도 구글로 전남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숙소, 맛집 정보 등을 현지 언어로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촉진 협력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창업 관련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

한다. 구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 방안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협력사업으로는 전남의 관광·문화·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에 전남의 관광 명소를 표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구글의 디지털 도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남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또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Google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손쉽게 도달하고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글과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등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100만원 저축하고 100만원 더 받으세요"

시 '청년 13통장' 2월3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2월 3일까지 일(1)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3)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살)통장' 10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모집 인원은 620명으로 지난해 9기(610명)보다 늘었다.

사업은 19~39세(1985년 1월2일~2006년 1월1

일 출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의 만기금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 청년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로해야 하며, 본인 세금포함 월 소득이 86만5444

~287만416원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날부터 2월 3일까지 청년13(일+살)통장 누리집(<https://www.13accoun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서류 심사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2월 10일 추첨하며 과정은 광주청년센터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jyouthcente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또는 13통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